※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1~3]

(가)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 희미한 십오 촉(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샤쯔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 내 ㉠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늬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지아비와 마조 앉어 대구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늬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 내 쓸쓸한 얼골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어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어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
[A] **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쓰 쨈'과 도연명(陶淵明)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나)
우리 집도 아니고 / 일갓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 **아버지**의 침상(寢床)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노령(露領)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자래운 ㉤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 두는 말도 없었고,
아무을만(灣)의 파선도
설룽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듯이 벤 채.

다시 뜨시잖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갈앉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 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停止)를 가리켰다.
때늦은 의원이 아모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 손으로 / 눈빛 미명은 고요히 / 낯을 덮었다.

우리는 머리맡에 엎디어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아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문 1】 (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자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②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③ 시적 대상과의 대화를 통해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④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시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문 2】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흰 바람벽이 있어」에서는 일종의 스크린 역할을 하는 '흰 바람벽'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진다. '흰 바람벽'을 통해 시인의 추억이 지나가고, 마침내 화자의 목소리가 자막으로 처리된다. 그 목소리의 실제 주인공인 화자는 스크린 속에서 펼쳐지는 '나'를 보는 관객이 된다. '나'가 스크린을 통해 이렇게둘로 분리되면서 '나'의 성찰은 한층 깊이를 갖게 된다.

① '이러한 글자들'은 실제로는 화자 자신의 목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② 화자가 관객이 되어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지나가는 글자들을 바라보고 있군.
③ 화자의 목소리가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지나가는 글자로 표현되면서 성찰의 깊이가 확보된다고 볼 수 있겠군.
④ '초생달', '바구지꽃', '짝새', '당나귀'와의 합일을 통해 화자 자신이 지향하고자 하는 삶에 대한 성찰을 드러냈군.

【문 3】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 모두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다.
② ㉡, ㉣ 모두 고국을 떠나 유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
③ ㉡, ㉢은 고향에 대한 향수를 유발하는 대상이다.
④ ㉢, ㉤은 재회를 소망하는 시적 대상이다.

【문 4】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그는 자기 일 밖의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
㉡ **한**밤중에 그가 나에게 전화 할 **줄** 몰랐다.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을 테니 선생님**만큼**만 공부하길 바란다.
㉣ 형님께는 햇사과**를**, 동생에게는 햅쌀**을** 선물로 보냈다.

① ㉠ :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 된 하나의 단어이다.
② ㉡ :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인다.
③ ㉢ :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으면 쓰일 수 없고 형식적 의미만을 나타낸다.
④ ㉣ :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뀌고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인 뜻을 갖는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5~7]

(가)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타곤 한다. 그런데 노둔하고 야윈 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긍긍하기 일쑤요, 개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곤 한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반면에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며 잘 달리는 준마를 얻었을 경우에는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간주한 채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그러나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치 못한다.

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어버이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비에게서, 비복(婢僕)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독부(獨夫)가 되고, 백승(百乘)의 대부(大夫)도 고신(孤臣)이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오래도록 차용하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차마설을 지어서 그 뜻을 부연해 보았다.

이곡, <차마설(借馬說)>

(나)

10월 초하루에 **이자(李子)**가 밖에서 돌아오니, 종들이 흙을 파서 집을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무덤과 같았다. 이자는 어리석은 체하며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집 안에다 무덤을 만들었느냐?"

하니, 종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무덤이 아니라 토실입니다."

하기에,

"어찌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

하였더니,

"겨울에 화초나 과일을 저장하기에 좋고, 또 길쌈하는 부인들에게 편리하니, 아무리 추울 때라도 온화한 봄 날씨와 같아서 손이 얼어 터지지 않으므로 참 좋습니다."

하였다.

이자는 더욱 화를 내며 말하기를,

"여름은 덥고 겨울이 추운 것은 사시(四時)의 정상적인 이치이니, 만일 이와 반대가 된다면 곧 괴이한 것이다. 옛적 성인이,겨울에는 털옷을 입고 여름에는 베옷을 입도록 마련하였으니, 그만한 준비가 있으면 족할 것인데, 다시 토실을 만들어서 추위를 더위로 바꿔 놓는다면 이는 하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사람은 뱀이나 두꺼비가 아닌데, 겨울에 굴속에 엎드려 있는 것은 너무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길쌈이란 할 시기가 있는 것인데, 하필 겨울에 할 것이냐? 또 봄에 꽃이 피었다가 겨울에 시드는 것은 초목의 정상적인 성질인데, 만일 이와 반대가 된다면 이것은 괴이한 물건이다. 괴이한 물건을 길러서 때아닌 구경거리를 삼는다는 것은 하늘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니, 이것은 모두 내가 하고 싶은 뜻이 아니다. 빨리 헐어 버리지 않는다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였더니, 종들이 두려워하여 재빨리 그것을 철거하여 그 재목으로 땔나무를 마련했다. 그리하고 나니 나의 마음이 비로소 편안하였다.

이규보, <괴토실설(壞土室說)>

【문 5】 (가)와 (나)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주관적인 정서를 함축적인 언어 형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②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을 현재형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③ 실재하는 사실을 들어 이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④ 현실 세계를 반영한 갈등을 중심으로 허구적 이야기를 전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문 6】 (나)의 **이자(李子)**가 비판할 대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댐 건설을 통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② 스마트 온실을 활용한 작물 재배 및 수확
③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을 통한 지역 내 거래 촉진
④ 패시브 하우스 건축을 통한 연중 일정 온도 유지

【문 7】 (가)와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강산 죠흔 경을 **힘센 이** 닷톨 양이면
ᄂᆡ 힘과 ᄂᆡ 분으로 어이ᄒᆞ여 엇들쏜이
진실로 금ᄒᆞ리 업쓸씨 나도 두고 논이노라

- 김천택

ㄱ. (가)의 '만방의 임금'과 <보기>의 '힘센 이' 모두 멀리해야 할 대상이 되겠군.
ㄴ. (가)와 <보기> 모두 설의의 방식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군.
ㄷ. (가)의 '맹자'와 <보기>의 화자 모두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군.
ㄹ. (가)와 <보기> 모두 독자로 하여금 성찰의 자세를 갖출 것을 독려하고 있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8~10]

1980년대 심리학자들은 어떤 단어를 보았을 때 그것과 연관된 많은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쉽게 떠오르는지는 그때 그때 다르고, 어떻게 다른지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테면 'SO_P'에서 빈칸을 채워 단어를 완성하라고 하면, 최근에 '먹다'라는 단어를 보았거나 들은 사람이라면 순간적으로 'SOAP(비누)' 보다는 'SOUP(수프)'란 단어를 떠올리기 쉽다. 반면에 금방 '씻다'라는 단어를 본 사람이라면 '수프'보다 '비누'를 떠올릴 확률이 높다. 이런 현상을 '점화 효과'라 하고, '먹다'라는 말이 '수프' 생각을 점화 또는 촉발했다거나 그 말이 기폭제가 되어 '수프'가 떠올랐다고 설명한다.

점화 효과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머릿속에 '먹다'라는 개념이 있으면 '수프'란 말이 어렴풋이 들리거나 뿌옇게 보여도 평소보다 빨리 그 단어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수프 외에도 '고기', '배고프다', '다이어트' 등 음식과 관련된 수많은 단어가 떠오른다. 여기에서 점화된 개념은 정도는 약할지라도 또다시 다른 개념을 점화할 수 있다. 이런 활성화는 호수에 물결이 일듯이 거대한 연상망의 한쪽에서 주위로 퍼져나간다. 이 현상은 현재 심리학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다.

기억 연구에서 또 하나의 큰 성과는 점화 효과가 개념이나 단어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지만, 인지하지도 못한 사건이 행동과 감정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리학자 존 바그가 동료들과 실시한 실험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들은 대부분 18세에서 22세 사이인 뉴욕대학 학생들에게 단어 다섯 개가 뒤섞인 문장을 주고 거기서 단어 네 개를 뽑아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다. 이때 한 집단에게는 문장 중 절반에 '깜빡하다', '대머리', '회색', '주름' 등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섞어 제시했다. 문제를 다 푼 학생은 복도 끝에 있는 실험실로 가서 다른 실험에 참여해야 했다. 이 짧은 순간이 바로 이 실험의 핵심이었다. 연구원들은 각 학생이 반대쪽 실험실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다. 바그가 예상한 대로, 노인과 관련 있는 단어로 문장을 만든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훨씬 느린 걸음으로 다른 실험실로 이동했다.

'관념운동 효과'로도 알려진 실험 결과는 점화 효과의 두 단계가 나타났다. 첫째, 주어진 단어 조합에는 '노인'이란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는데도 노인에 대한 개념을 점화했다. 둘째, 이런 생각이 행동을 촉발해, 노인처럼 느리게 걷게 했다. 이 모든 결과는 실험 참가자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일어났다. 실험이 끝나고 학생들에게 제시된 단어에 공통된 주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냐고 묻자 하나같이 몰랐다고 대답하였고, 첫 번째 실험에서 본 단어가 그 뒤의 행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념운동 효과는 거꾸로 나타날 수도 있다. 독일의 어느 대학에서는 뉴욕 대학에서 바그가 했던 실험을 거꾸로 실시했다. 실험에서 학생들은 1분에 30걸음을 걷는 속도로 5분 동안 실험실 안을 걸어 다녀야 했는데, 평소 속도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다. 이 짧은 실험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깜빡하다', '늙다', '외롭다' 등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훨씬 빨리 알아보았다. 점화 효과가 어느 방향으로 나타나든 모두 일관된 반응을 보인 것이다.

【문 8】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현실적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② 설명 대상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 독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③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되는 해결 방안과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④ 논의 대상에 대해 구분되는 관점을 제시하고, 이에 어긋나는 반례를 분석하고 있다.

【문 9】 윗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것은?

① 점화 효과는 단어와 관련된 개념만을 활성화시킨다.
②점화 효과는 일정한 방향만으로 작용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③ 점화 효과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행동과 감정을 촉발할 수 있다.
④ 점화 효과는 연상망의 확장을 유도함으로써 사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문1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우리는 투표를 정책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가치를 반영하는 의도적 행위로 보고, 정책과 무관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투표소의 위치 등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000년 애리조나 선거구에서 투표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학교 재정 지원 증가안에 찬성한 비율은 학교 안에 투표소가 설치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높았다.

① 투표소의 위치가 투표 행위를 점화했다고 볼 수 있겠군.
② 학교와 관련된 개념이나 단어를 활성화하는 것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관찰할 수 있겠군.
③ 의식적이고 자율적이라고 생각했던 판단이 실은 인지하지 못한 요인으로부터 촉발된 것일 수 있겠군.
④ 학교 재정 지원 증가안에 찬성한 사람들은 투표소 위치가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겠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11~13]

앞부분 줄거리: '나'의 친정어머니는 넘어져 크게 다치는 바람에 수술을 받게 되고, '나'는 홀로 어머니의 병실을 지키게 된다. 아흔에 가까운 고령의 어머니는 수술 후 마취가 풀리면서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그놈 또 왔다. 뭘하고 있냐! 느이 오래빌 숨겨야지, 어서"
"엄마,제발 이러시지 좀 마세요. 오빠가 어디 있다고 숨겨요?"
"그럼 느이 오래빌 벌써 잡아갔냐."
"엄마, 제발."
어머니의 손이 사방을 더듬었다. 그러다가 붕대 감긴 자기의 다리에 손이 닿자 날카롭게 속삭였다.
"가엾은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꼼짝 말아. 다 내가 당할 테니."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시늉을 했다. ㉠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엄호하면서 어머니의 적을 노려보았다. 어머니의 적은 저승의 사자가 아니었다.
"군관동무, 군관 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어머니의 눈의 푸른 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가엾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의 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것을…….
어머니는 그 다리를 어디다 숨기려는지 몸부림쳤다. 그러나 어머니의 다리는 요지부동이었다.
"군관 나으리,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찾아보실 것도 없다니까요. 군관 나으리."
그러나 절대절명의 위기가 어머니에게 육박해오고 있음을 난들 어쩌랴. 공포와 아직도 한 가닥 기대를 건 비굴이 어머니의 얼굴을 뒤죽박죽으로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선 구슬 같은 땀이 송글송글 솟아오르고 다리를 감싼 손과 앙상한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가엾은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 몹쓸 일을 두 번 겪게 하시다니…….
"어머니, 어머니 이러시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는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면서 울부짖었다.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나를 검부러기처럼 가볍게 털어내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안된다.안돼. 이 노옴. 안돼. 너도 사람이냐? 이 노옴, 이 노옴."
나는 벽까지 떠다밀린 채 와들와들 떨면서 점점 심해가는 어머니의 광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몸에서 수술한 다리만 빼고는 온몸이 노한 파도처럼 출렁였다. 그래서 더욱 그 다리는 어머니의 몸이 아닌 이물질처럼 괴기스러워 보였다. 어머니의 그 다리와 아들과의 동일시가 나한테까지 옮아붙은 것처럼 나는 그 다리가 무서웠다.
"안된다 이 노옴"이라는 호통과 "군관 나으리, 군관 선생님, 군관 동무"라는 아부를 번갈아 하며 몸부림치는 서슬에 마침내 링거줄이 주사바늘에서 빠져 버렸다. 혈관에 꽂힌 채인 주사바늘을 통해 피가 역류해 환자복과 시트를 점점 물들였다.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란은 극에 달했다.

중략 줄거리: '나'는 겨우 어머니를 진정시킨다. 과거 6·25 전쟁에서 '나'의 오빠는 인민군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의용군에 지원했다가 겨우 탈출하여 돌아온다.

그런데 오빠는 속속들이 망가져 있었다.
전세가 불리해져 피란을 갈 상황에 처한 가족은 예전에 살던 동네에 숨어 지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닥친 인민군 군관에게 발각된다.

다시 포성이 가까워지고 그들의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앉으나서나 그들이 곱게 물러가기만을 축수했다.
"그저 내 자식 해코지만 마소서. 불쌍한 내 자식 해코지만 마소서."
마침내보위군관이 작별하러 왔다. 그의 작별방법은 특이했다.
"내가 동무들같이 간사한 무리들한테 끝까지 속을 것 같소. 지금이라도바른 대로 대시오. 이래도 바른 소리를 못하겠소?"
그가 허리에 찬 권총을 빼 오빠에게 겨누며 말했다.
"안된다. 안돼. 이 노옴 너도 사람이냐? 이 노옴."
어머니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그의 팔에 매달렸다. 오빠는 으, 으, 으, 으, 짐승 같은 소리로 신음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가 어머니를 획 뿌리쳤다.
"이래도 이래도 바른 말을 안할 테냐? 이래도."
총성이 울렸다. 다리였다. 오빠는 으, 으, 으, 으, 같은 소리밖에 못 냈다.
"좋다. 이래도 바른 말을 안할 테냐? 이래도."
또 총성이 울렸다. 같은 말과 총성이 서너 번이나 되풀이됐다. 잔혹하게도 그 당장 목숨이 끊어지지 않게 하체만 겨냥하고 쏴댔다.
오빠는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 기절해 꼬꾸라지고 어머니도 그가 뿌리쳐 나동그라진 자리에서 처절한 외마디 소리만 지르다가 까무라쳤다.
"죽기전에 바른말 할 기회를 주기 위해 당장 죽이진 않겠다."
그후 군관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만에 세상은 또 바뀌었다.
오빠의 총상은 다 치명상이 아니었는데도 며칠만에 운명했다. 출혈이심한데다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 박완서, <엄마의 말뚝2> -

【문1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서술자가 자신의 심리적 반응과 해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서술자를 장면에 따라 전환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③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의 단서를 암시하고 있다.
④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문12】 ㉠과 관련해 작품의 구절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어머니'가 '온몸으로 그 다리를 엄호'하는 것은, 과거 사건에서 '아들'을 지키고자 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것이군.
② '어머니'가 환각 속에서 보고 있는 '군관'은, 과거 사건에서 '오빠'를 해친 존재로군.
③ '나'가 '차라리 죽게 하시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머니'의 환각이 매우 고통스러움을 알고 있기 때문이군.
④ '어머니'가 '나'를 '털어내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치는 이유는, 과거'나'가 '오빠'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 때문이군.

【문13】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환각을 보는 '어머니'의 몸은 심하게 떨렸다.
② 주삿바늘이 빠져 피가 나면서 '어머니'의 이상 행동이 심해졌다.
③ '보위군관'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나'의 집을 찾아왔다.
④'오빠'는 총에 맞아 생긴 상처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14~15]

世·솅宗종 御·엉製·졩 訓·훈民민正·졍音흠
나·랏:말ᄊᆞ·미 ㉠ 中듕國·귁·에 달·아 ㉡ 文문字·쫑·와·로 서르 ᄉᆞᄆᆞᆺ·디 아·니ᄒᆞᆯ·씨
·이런 젼·ᄎᆞ·로 어·린 百·빅姓·셩·이 니르·고·져
㉢ ·홇·배 이·셔·도
ᄆᆞᄎᆞᆷ:내 제 ㉣ ·ᄠᅳ·들 시·러 펴·디 :몯ᄒᆞᇙ ·노·미
하·니·라
㉤ ·내 ·이·ᄅᆞᆯ 爲·윙·ᄒᆞ·야 :어엿·비 너·겨 ·
새·로 ㉥ ·스ㆍ믈여·ᄃᆞᆯ字·쫑·ᄅᆞᆯ ᄆᆡᇰ·ᄀᆞ노·니
:사ᄅᆞᆷ:마·다 :히ㆍ ·ᄢᅴ :수·ᄇᆡ 니·겨 ·날·로 ㉦ ·ᄲᅩᆼ·
메 便뼌安한·킈 ᄒᆞ·고·져 ᄒᆞᇙ ᄯᅳᄅᆞ·미니·라

【문14】 윗글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과 ㉦에서 동일한 비교의 부사격 조사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에는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표시하는 조사가 드러난다.
③ ㉢과 ㉤에서 같은 격을 표시하는 조사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과 ㉥을 통해 체언의 끝소리와 모음 조화에 따라 목적격 조사가 다르게 실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문15】 현대 국어와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음운 변화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런'이 '이런'으로 바뀌었음을 통해 성조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② '말ᄊᆞ·미'가 '말씀이'로, 'ᄆᆞ·ᄎᆞᆷ:내'가 '마침내'로 바뀌었음을 통해 아래 아(·)가 첫 음절에서는 'ㅏ',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ㅡ' 또는 'ㅣ'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③ '펴 · 디'가 '펴지'로 바뀌었음을 통해 'ㅣ' 모음 앞에서 구개음화가 적용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몯ᄒᆞᇙ'이 '못할'로 바뀌었음을 통해 종성의 'ㄷ'이 'ㅅ'으로 발음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16】 <보기>를 참고하여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꾼 결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어떤 동작을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문장을 피동문이라고 한다. 피동문을 만들 때에는 능동사 어근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이거나, '-되다' 혹은 '-아지다/-어지다'를 사용한다.

	< 능동문 >	< 피동문 >
①	내가 웃었다.	민수가 나를 웃겼다.
②	모기가 나를 물었다.	내가 모기에게 물렸다.
③	정부가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이정부에 의해 진행되었다.
④	나는바라던 것을 이루었다.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다.

【문17】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ㅇ 학습 활동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난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한다. 홑문장보다 복잡한 겹문장의 구조를 잘 파악하려면 각 절의 주어와 서술어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 보자.

형이 저지른 잘못이 빌미가 되었음을 동생이 밝혔다.

ㅇ 학습 활동 수행 결과

문장 전체에 주어와 서술어의 구조는 3회 나타난다. 먼저 문장 전체의 서술어는 '밝혔다'이고, 이에 해당하는 주어는 (㉠)이다. 명사절의 서술어는 '되었음'이고, 이에 해당하는 주어는 (㉡)이다. 관형사절의 서술어는 '저지른'이고, 이에 해당하는 주어는 (㉢)이다.

	㉠	㉡	㉢
①	동생이	잘못이	형이
②	동생이	빌미가	형이
③	형이	잘못이	빌미가
④	형이	빌미가	잘못이

【문18】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제3절 보조 용언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① "그 일은 할 만하다."는 "그 일은 할만하다."와 같이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하다.
② '제47항 다만'에 따르면 "비가 올 듯도 하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만이 옳다.
③ '제47항 다만'에 따르면 "떠내려가버렸다."와 같이 적는 것은 옳지 않다.
④ '제47항 다만'에 따르면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는 앞말이 합성 용언이므로 띄어 쓴 경우에 해당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19~21]

지구인들이 만들어 낸 플라스틱 양은 1950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약 83억 톤에 이른다. 2020년 유엔환경계획(UNEA)의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 한 해 약 200만 톤이던 플라스틱 생산량은 갈수록 증가해 2020년에는 약 4억 톤이 되었다. 이 플라스틱은 잘 썩지 않아서 만들면 만드는 대로 지구에 쌓이고 있다.

심지어 이 플라스틱은 생산되는 순간부터 사라질 때까지 온갖 환경 호르몬과 유해 물질을 꾸준히 배출해서 더욱 문제가 된다. 특정한 종류의 플라스틱은 높은 열이나 전자레인지에 노출되면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다. 안전할 것 같은 종이컵도 안쪽에 플라스틱이 코팅되어 있어서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과불화화합물(PFAS)이 검출되기도 한다. 폴리스티렌(PS)으로 만들어진 음료 컵 뚜껑에서는 스타이렌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이 나와서 많은 나라에서 이를 폴리프로필렌(PP)으로 교체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플라스틱에서는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이름도 복잡한 온갖 해로운 물질이 쏟아져 나온다.

한편 플라스틱이 마모되어 만들어지는 ㉠ 미세 플라스틱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플라스틱의 생산량과 폐기량을 비교했을 때 오차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시작된 연구를 통해 발견되었다. 리처드 톰슨의 연구 팀에서 나머지 플라스틱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조사한 결과,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이 눈에 안 보일 만큼 작은 알갱이로 부서져 바닷속을 떠돌고 있음을 밝혀냈다.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마시는 물과 소금으로 흘러들고, 물고기 먹이가 되어 식탁 위에 올라 우리 입속으로 들어오고, 수증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 비와 눈이 되어 전 지구에 내리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은 미세 섬유에서도 만들어진다. 나일론,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아크릴 같은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을 세탁기에 넣고 빨면 수십만 개의 미세 섬유가 빠져나온다. 너무 작아서 어디에도 걸러지지 않는 미세 섬유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바다로 흘러든다.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 오염의 약 1/3은 미세 섬유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패스트 패션이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패스트 패션은 유행하는 디자인의 옷을 마치 패스트푸드처럼 매우 신속하게 제작, 유통, 판매하는 패션 산업을 가리킨다. 누구나 부담 없이 빠르게 변하는 유행을 따라 쉽게 사 입고 쉽게 버릴 수 있도록 가격이 저렴한 합성 섬유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이 지구를 위해 무척 훌륭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빨대가 문제라면 플라스틱 빨대만 금지할 것인지 빨대 자체를 금지할 것인지, 금지한다면 기업의 빨대 생산과 유통에 벌금을 물릴 것인지 소비자의 빨대 이용에 벌금을 물릴지, 그렇게 되면 아픈 사람이나 어린아이처럼 빨대가 꼭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재료로 빨대를 대신한다면 가장 편리하고 저렴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 게 무엇일지, 계속 묻고 또 물어야만 한다.

【문19】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2015년까지의 누적 플라스틱 양은 최소 약 83억 톤에 달한다.
②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③저온에 노출되었을 때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플라스틱이 있다.
④패스트 패션은 빠르게 옷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의류 산업이다.

【문20】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플라스틱 폐기량이 생산량보다 많은 이유에 해당한다.
② 사람이 먹는 음식에도 유입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
③ 의류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미세 섬유와도 관련이 있다.
④ 합성 섬유의 사용이 늘어나면 그 양이 증가할 수 있다.

【문21】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잘 썩는 플라스틱을 개발한다면 환경 호르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폴리프로필렌(PP)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이 검출되지 않을 것이다.
③ 바닷물과 달리 눈과 비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을 것이다.
④ 환경 오염을 줄이려면 우선적으로 기업의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 계 속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22~25]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검은 옷차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촌장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나 아, 촌장님. 여긴 웬일이십니까?
촌장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이 황야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러 오곤 했던 곳이지요. 그땐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여기저기 덫이 깔려 있고 망루 위의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어린 난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었으니까요.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 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곳엘 찾아온 겁니다.
나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촌장오래 뵙지 못했더니 그동안 흰머리가 더 많아지셨군요.
나 촌장님도요, 더 늙으셨어요.
촌장 오다 보니까 저쪽 덫에 이리가 치어 있었습니다.
나 이리요? 어느 쪽이죠?
촌장 저쪽요, 저쪽. 찔레 덩굴 밑이던가요…….
나 드디어 붙잡는군요!

파수꾼 나 퇴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인다.

촌장 이것, 네가 보낸 거니?
다 네, 촌장님.
촌장 ㉠ <u>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u>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 ㉡ <u>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u>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넌 나 혼자만을 와 달라고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다 도끼는 왜 들고 와요?
촌장 망루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 그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어. Ⓐ <u>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으레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u>
다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다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난 알고 있지.
다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촌장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중략)

촌장 애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을 보살피고 양철 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 <u>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애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u>
다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 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촌장 ㉢ <u>뭐라고?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킨 후에 웃으며)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 떼? 그게 뭐냐?</u> 있지도 않은 그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 놓고, 마을엔 가시 울타리를 둘렀다. 망루도 세웠고, 양철 북도 두들기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 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다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망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촌장 그래, 외치마.
다 아, 이젠 됐어요!
촌장 (혼잣말처럼) …… 그러나 잘될까? 흰 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 가지고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리 떼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다 뭘 망설이시죠?
촌장 아냐,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 <u>(온화한 얼굴에서 혀가 날름 나왔다가 들어간다.)</u> 지금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잖니? 망루를 부순 다음엔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진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다 살인이라고요?
촌장 Ⓒ <u>그래, 살인이지. (난폭하게) 생각해 보렴, 도끼에 찍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애,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u>
다 아니에요, 그건!
촌장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 떼를 만들었던가, 그걸 알려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다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촌장 허나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 구름이라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나는……. (은밀한 목소리로) 얘, 네가 본 그 흰 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다 아뇨.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촌장 그것 봐. 넌 내 피를 보고 싶은 거야.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 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다 (창백해지며) 그건, 그건 아니에요!
촌장 Ⓓ <u>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껴안으며)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칠 테니.</u>
다 꼭 약속하시는 거죠?
촌장 물론 약속하지.
다 정말이죠, 정말?
촌장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 이강백, <파수꾼>

【문2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두 개 고르면?

< 보 기 >
ㄱ.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연극을 공연하기 위한 글이다.
ㄴ.장면 전환이 자유롭고 사실적인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ㄷ. 인물의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갈등이 전개되며 사건이 현재형으로 제시된다.
ㄹ. 해설자가 작품 내부에서 사건을 관찰하며 관련 인물들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문23】 윗글을 감상한 학생들이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한 '촌장'의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군.
② ㉡: '운반인'에 대한 '촌장'의 못마땅한 심정이 드러나는군.
③ ㉢: 진실이 밝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촌장'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군.
④ ㉣: '촌장'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성격을 행동을 통해 관객에게 보여 주고 있군.

【문24】 Ⓐ~Ⓓ에서 '촌장'이 '파수꾼 다'를 설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진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얻게 될 대가를 제시하며 회유하고 있다.
② Ⓑ: 개인에게 생길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하며 상대의 실천 의지를 꺾고 있다.
③ Ⓒ: 끔찍한 상황을 가정하여 상대의 불안감과 동정심을 자극하고 있다.
④Ⓓ: 시간을 벌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으로 타협하고 있다.

【문2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여 체제 유지를 위해 거짓말을 일삼던 지배 권력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위선적인 독재 권력은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는 체제를 안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가상의 적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심어 주었다. 이러한 통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진실은 철저히 은폐되어야 했고 진실을 알 수 없게 소통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진실을 말하는 개인, 언론이나 단체들을 탄압하였다. 이 작품은 이러한 현실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하였다.

① '이리떼'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상의 적'이며 '촌장'에게는 사회 통제의 수단이 되는군.
② '파수꾼 다'는 '가상의 적'이 실체 없는 허상임을 알지만 '흰 구름'의 진실을 혼자만 알기를 원하는군.
③ '촌장'은 체제 유지를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한 명분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의 단결과 질서를 내세우고 있군.
④ '망루'는 위와 아래로 분할되어 망루 아래에서는 진실을 알 수 없게 소통을 차단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는 권력의 기제 역할을 하는군.